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2026. 5. 11.
No. 1062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명수
www.krihs.re.kr

이 브리프는 나무를 베지
않고 만든 생분해성 펄프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소영 전문연구원
이영주 선임연구위원
홍사흠 센터장
박혜정 전문연구원

도시 내 문화접근성 격차와 청년층 주거지의 공간 분포: 한국과 독일의 비교 연구

주요 내용

- 15분 도시 등 근접성 중심의 계획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문화시설은 청년층의 정주 의향과 생활만족도를 결정짓는 필수 공공서비스이자 핵심 어메니티로 인식되고 있음
- 문화시설 공급 전략을 비교해 보면 서울은 시간 기준 접근성과 보행 일상권을 통해 생활권 내 접근성을 높이려는 반면, 베를린은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에 기반하여 위계별로 문화서비스를 배분하는 다핵적 공급 체계를 지향하고 있음
- E2SFCA 지수로 문화접근성을 비교한 결과, 서울은 영화관을 제외하고 도서관(0.168), 박물관·미술관(0.121), 공연시설(0.000)에서 베를린(각각 0.216, 0.205, 0.088)보다 접근성이 낮게 나타남
- 서울은 청년 인구는 밀집해 있으나 문화시설 접근성은 낮은 '저접근-고청년(LH)' 클러스터에 거주하는 청년이 전체의 약 10.7~17.0%에 달해 공간-시설 간의 불일치가 뚜렷하게 확인됨
- 통제변수를 고려한 공간회귀 분석 결과, 두 도시 모두 문화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 비중이 높았으나, 서울은 주변 수요를 흡수하는 경쟁적 핫스팟 구조를 보인 반면, 베를린은 지역 내부효과가 중심인 분산형 구조를 보임

정책방안

- (서울) 시설 맞춤형 공급 전략 추진: 전반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도서관, 영화관은 청년 밀집 저접근 지역을 대상으로 보완하고, 박물관·미술관, 공연시설은 기존 핫스팟 외 지역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음
- (서울) 위계적·다핵적 문화거점 네트워크 구축: 특정 도심 거점에 문화시설이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광역-권역-생활권'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문화거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베를린) 공백지역 축소 전략 추진: 전반적인 접근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문화서비스 공백 지역을 위주로 최소 수준의 문화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문화시설 공급 전략을 추진해야 함
- (공통) 문화-주거-교통 통합 패키지 정책 추진: 문화 인프라 개선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층이 축출되는 문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거 공급과 임대료 안정 정책을 문화시설 확충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공통) 데이터 기반의 입지 선정 및 모니터링: r5r 등 실질적 접근성 분석 도구를 활용해 실제 이동 여건을 반영한 입지 선정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함

01. 근접성 기반의 도시계획과 문화시설 접근성

근접성 기반의 도시계획(proximity-based planning) 논의

전 세계적으로 근접성 기반의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 내 접근성 그리고 공간적 형평성을 재개념화하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특히 15분 도시 담론은 일자리, 교육, 의료, 쇼핑 등 주요 서비스시설에 대해 주거지 인근에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Moreno et al. 2021)
- 그러나 기존의 근접성 기반 논의는 주로 일자리, 교육, 의료 등 필수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음
- 그럼에도 문화시설은 청년층의 생활만족도와 정주 매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근접성 기반 도시계획 논의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한국은행 2025; Brown and Scott 2012; Lawton et al. 2013)

서울과 베를린 비교 연구의 필요성

서울과 베를린은 모두 문화시설을 필수적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나, 문화시설의 공급 전략과 공간구조 측면에서 차이를 보임. 동시에 두 도시는 도심의 높은 주거비와 청년층의 외곽화, 이에 따른 문화접근성 격차라는 공통의 정책과제에 직면해 있음

- 두 도시 모두 대표적인 문화거점으로서 다양한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나, 도심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청년층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청년층의 문화시설 접근성 저하와 문화적 소외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공간적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서울의 문화시설 공급 전략은 국가 단위의 최소 기준과 지자체 단위에서의 기본계획이 연계되어 있으며, 일정 시간 내 주요 서비스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기반(N-minute)의 미시적 생활권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시간기준 최소 접근성 도입: 국가 기초생활인프라 최소기준은 인구수 기준으로 인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2018년 개정을 통해 실제 이동시간 기반의 접근성 지표를 도입함. 도서관은 보행 5분(근린형) 혹은 차량 10분(거점형) 이내에, 박물관·미술관 및 공연장은 차량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이상적인 목표로 설정함
- 보행 일상권 중심의 도시계획: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도보 30분 내 주거·일자리·여가·문화 활동이 가능한 보행 일상권을 지향하며, 역세권과 복합개발을 통해 생활권 단위 문화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
- 청년 주거와 문화기능의 결합: 청년 안심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거를 공급하면서 커뮤니티 라운지, 전시공간, 창작공간 등 문화시설을 함께 도입해 청년층의 정주 여건을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베를린은 독일의 연방 공간계획과 중심지 이론 관련 체계 속에서 위계별로 적정 문화시설을 분산 배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에 기반한 위계적 공급: 독일 연방국토계획법(ROG)은 국토 전역에 서비스 기능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 중심지 체계를 운영하여 상위·중위·하위 중심지별로 필요한 문화시설 기능을 배분함으로써, 도시 전역의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 카다스트(Kulturkataster)를 통한 데이터 기반 관리: 베를린은 문화시설을 GIS 기반으로 기록·관리하는 문화 카다스트를 운영하여¹⁾, 문화서비스 공백지역을 파악하고 신규 입지 선정 시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수행하고 있음
- 주거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 베를린은 임대료 상승 억제 정책(Mietpreisbremse)과 같은 사회적 주거 정책을 통해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도심 지역에서 청년층이 경제적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 Kulturraum Berlin. <https://kulturraum.berlin/projekte/kulturkataster/> (2025년 11월 28일 검색).

두 도시는 모두 문화접근성 제고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는 공간적 방식과 계획 논리는 상이하다는 점에서 비교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3가지 질문을 다루고자 함

- 첫째, 서울과 베를린에서 문화시설 접근성의 공간적 격차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 둘째, 이러한 격차는 청년 주거지 공간 분포와 어떠한 공간적 연계성을 보이는가?
- 셋째, 이러한 관계는 두 도시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가, 아니면 서로 다른 공간적 메커니즘을 보이는가?
- 이를 통해 문화시설 접근성이 단순한 생활편의 지표를 넘어 청년 주거의 공간구조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규명하고, 두 도시의 비교를 바탕으로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02. 문화접근성과 청년층 주거지 공간 분포

서울-베를린 문화접근성 비교

서울과 베를린의 문화접근성을 비교하기 위해 향상된 2단계 부동권역법(Enhanced Two-Step Floating Catchment Area: E2SFCA)을 적용하여 인구에 따른 수요와 거리에 따른 수요 감쇠효과를 반영한 접근성 측정 방법론을 활용하였음

- R 기반의 $r5r$ 패키지(Pereira et al. 2021)를 활용해 GTFS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교통과 보행을 함께 반영한 다중수단 통행시간을 산출하고, 25분 임계치 내에서 시간대별 거리감쇠를 적용하여 실제 이동 여건에 가까운 접근성 지수를 산출하였음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100m 격자이며, 거주 인구가 있는 격자를 기준으로 서울 2만 9,525개, 베를린 2만 7,909개를 대상으로 접근성을 비교하였음. 문화시설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공연시설, 영화관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개별 지수와 함께 정규화 평균을 활용한 종합지수도 산출하였음

분석 결과, 시설 유형별 접근성 수준은 시설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베를린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 중앙값 기준으로 서울은 도서관 0.168, 박물관·미술관 0.121, 공연시설 0.000으로 나타나 베를린(각각 0.216, 0.205, 0.088)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서울에서 영화관은 0.078로 베를린(0.015)보다 높아 공공·비상업 문화시설의 접근성이 더 낮게 나타남
- 불균등도 역시 시설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도서관과 영화관은 베를린의 지니계수가 서울보다 높았고, 박물관·미술관, 공연시설은 서울이 베를린보다 높게 나타남. 전체적으로 베를린은 문화시설 간의 불평등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문화시설 간 다소 차이를 보였음

표 1 시설 유형별 E2SFCA 중앙값 및 지니계수 비교

시설 유형	서울		베를린	
	중앙값(median)	지니계수(Gini)	중앙값(median)	지니계수(Gini)
도서관	0.168	0.442	0.216	0.638
박물관·미술관	0.121	0.827	0.205	0.703
공연시설	0.000	0.969	0.088	0.747
영화관	0.078	0.682	0.015	0.724

그림 1 E2SFCA 기반의 문화접근성 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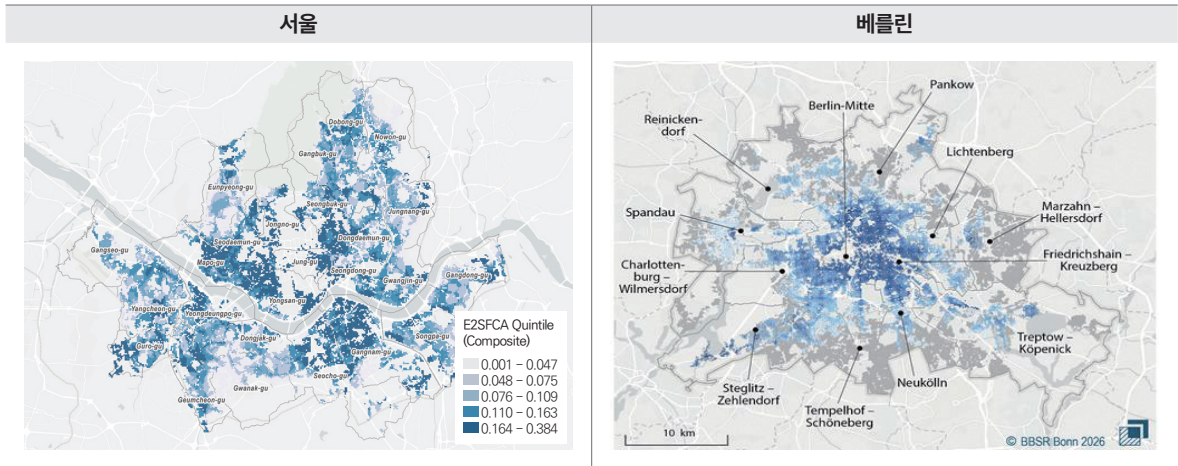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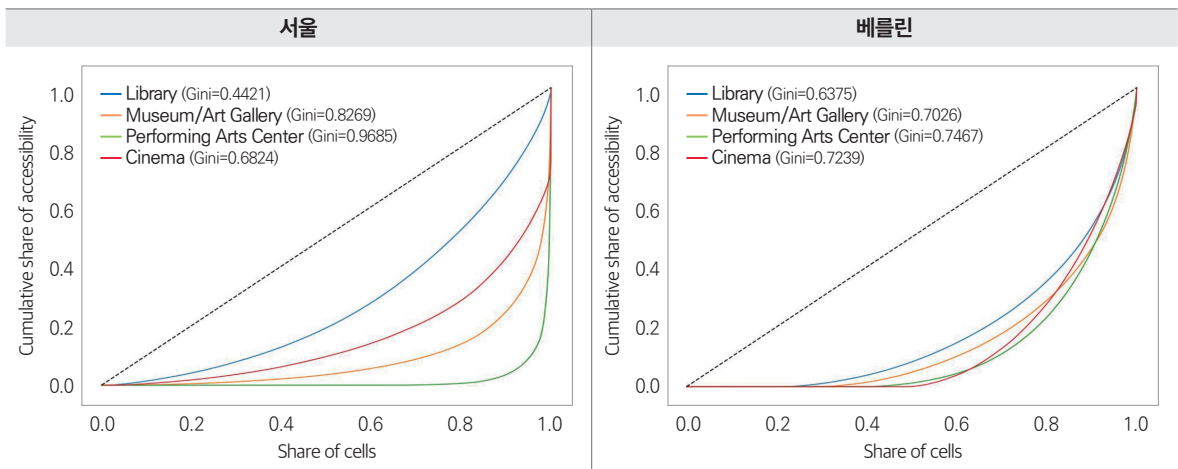


그림 2 서울-베를린 시설유형별 문화접근성 지니계수 비교



문화접근성과 청년 주거지의 공간적 정합성 분석

이변량 LISA(Bivariate LISA) 분석을 통해 문화접근성과 청년²⁾ 주거지 비율 사이의 공간적 연계성을 살펴본 결과, 특히 서울에서 문화접근성과 청년 주거지 분포 간 공간적 불일치가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은 박물관·미술관, 공연시설, 영화관에서 저접근-고청년(LH) 클러스터가 두드러졌음. 해당 클러스터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 비중은 박물관·미술관 16.56%, 공연시설 16.96%, 영화관 15.43%로, 고접근-고청년(HH) 클러스터 비중인 2.74%, 1.69%, 2.02%를 크게 상회하였음
- 이는 서울에서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상당수가 문화접근성이 낮은 곳에 위치함을 보여줌
- 반면 베를린은 도심부를 중심으로 고접근-고청년(HH) 클러스터,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저접근-고청년(LH) 클러스터가 함께 나타나는 이중적 구조를 보임. 도서관은 HH 6.14%, LH 3.50%, 박물관·미술관은 HH 5.22%, LH 2.87%로 HH 비중이 더 높았고, 영화관, 공연시설 또한 HH 클러스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베를린은 서울보다 청년 주거지와 문화접근성의 정합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북부·동부 외곽에는 여전히 저접근 지역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의 데이터 정합성을 고려하여 청년을 20~29세로 정의하였음.

그림 3 서울-베를린 문화접근성 종합지수와 청년 주거지 분포 간의 이변량 LISA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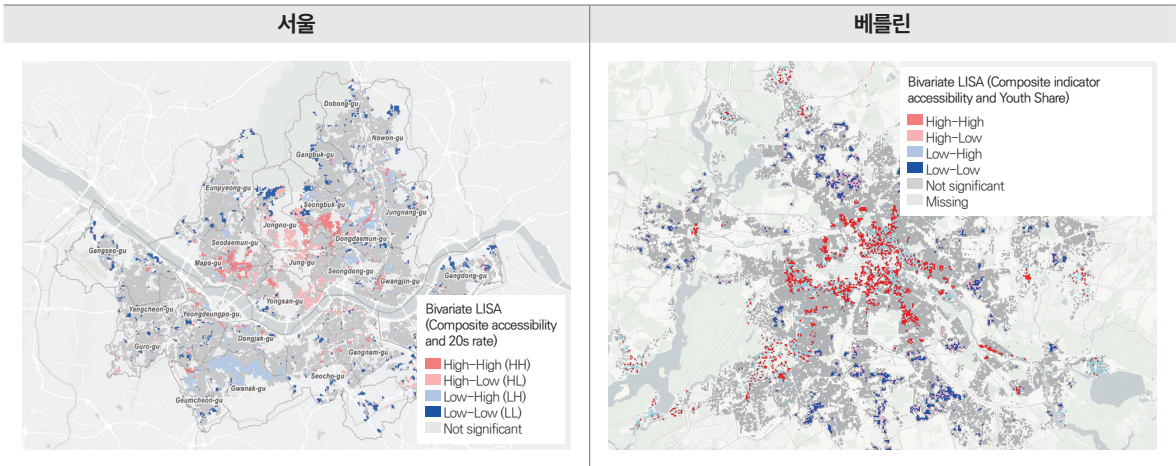


표 2 서울-베를린 문화접근성 종합지수-청년 주거지 분포 간의 이변량 LISA 군집 비교

구분		서울				베를린			
		면적(km ²)	비율(%)	20대 인구	20대 인구 비율(%)	면적(km ²)	비율(%)	20대 인구	20대 인구 비율(%)
HH	문화접근성 높음·청년 비율 높음	11.29	3.84	76,039	6.31	15.09	6.98	48,581	12.04
HL	문화접근성 높음·청년 비율 낮음	14.40	4.89	22,033	1.83	5.61	2.59	13,390	3.32
LH	문화접근성 낮음·청년 비율 높음	17.18	5.84	139,850	11.61	15.50	7.17	22,064	5.47
LL	문화접근성 낮음·청년 비율 낮음	16.69	5.67	35,871	2.98	10.04	4.64	13,626	3.38
N/S	비유의	234.74	79.76	930,892	77.27	169.97	78.61	305,985	75.81
	합계	294.30	100.00	1,204,685	100.00	216.21	100.00	403,646	100.00

03. 문화접근성과 청년 주거지 분포의 공간구조

문화접근성과 청년 주거지 분포 간 공간회귀 분석 결과

문화접근성과 청년 주거지 분포 간의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고용률, 임대료, 대학교까지의 거리, 대중교통 밀도를 통제한 공간 더빈 모형(Spatial Durbin Model·SDM)을 적용하였음

-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문화접근성 계수와 인접 지역 문화접근성의 공간지연항 계수를 함께 추정하였음

분석 결과, 두 도시 모두 같은 지역 내부에서는 문화접근성이 높을수록 청년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문화시설이 청년층의 주거 선택과 정주 매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자원으로 기능함을 보여주었음. 다만 이러한 관계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서울과 베를린에서 다르게 나타났음

- 서울의 경우 도서관, 공연시설, 영화관, 종합지수에서 해당 지역 문화접근성 계수는 모두 양(+)으로 나타나 문화접근성이 높은 격자일수록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음. 반면 공간지연항 계수는 음(-)으로 나타나 주변 격자의 문화접근성이 높을수록 해당 격자의 청년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음
- 이는 서울에서 문화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청년층이 집중되는 반면, 인접 지역의 청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공간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함. 서울에서는 문화시설의 효과가 생활권 전반으로 고르게 확산되기보다, 일부 문화거점이 주변 수요를 흡수하는 경쟁적 핫스팟으로 작동하는 경향을 보여줌

- 반면 베를린은 대부분의 시설 유형에서 해당 지역 문화접근성 계수가 양(+)으로 나타나 문화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 비중이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으나, 문화접근성의 공간지연항 계수는 약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이는 문화시설의 영향이 주로 해당 지역 내부에서 작동하며, 특정 거점이 주변 수요를 강하게 흡수하기보다 여러 지역에 분산된 문화거점을 따라 청년층이 분포하는 구조임을 시사함

20대 1인 가구를 활용한 강건성 분석

한국의 20대는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아 독립적인 거주지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의 20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강건성 분석(robustness check)을 시행함

- 전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는 다소 다른 공간 분포 패턴이 확인되었는데, 도서관·공연시설·영화관의 경우 전체 청년층 분석에서 나타난 양(+)의 해당 지역 문화접근성 계수가 20대 1인 가구 분석에서는 약화되거나 일부 음(-)으로 전환되었으며, 반대로 문화접근성의 공간지연항 계수는 양(+)으로 나타났음. 이는 문화시설이 위치한 격자 자체보다 그 인접 격자에서 1인 가구 청년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독립거주 청년의 경우 문화시설이 밀집한 상업·복합 용도 지역에 직접 거주하기보다, 보행권 내에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주거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접 주거지역을 선택하는 경향을 시사함. 즉, 청년 1인 가구는 문화시설과 가깝게는 살지만 같은 단위 내에는 거주하지 않는 미시적 공간 오프셋(micro-spatial offset)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 서울의 문화접근성과 청년 주거지 비율 간 공간회귀 분석 결과

변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공연시설	영화관	종합지수
E2SFCA (문화접근성, log)	0.163*** (0.036)	0.016 (0.014)	0.045** (0.019)	0.240*** (0.054)	0.478*** (0.075)
대학까지의 거리 (log)	0.016*** (0.003)	0.015*** (0.003)	0.018*** (0.003)	0.016*** (0.003)	0.015*** (0.003)
면적당 임대료	0.049*** (0.003)	0.050*** (0.003)	0.050*** (0.003)	0.050*** (0.003)	0.049*** (0.003)
대중교통 접근성	0.003*** (0.001)	0.003*** (0.001)	0.003*** (0.001)	0.003*** (0.001)	0.003*** (0.001)
(지역) 고용률 (log)	0.116*** (0.015)	0.120*** (0.015)	0.118*** (0.015)	0.119*** (0.015)	0.105*** (0.015)
lag E2SFCA (문화접근성, log)	-0.244*** (0.041)	-0.068*** (0.016)	-0.037* (0.020)	-0.406*** (0.058)	-0.692*** (0.081)
lag 대학까지의 거리 (log)	-0.111*** (0.003)	-0.114*** (0.003)	-0.113*** (0.003)	-0.111*** (0.003)	-0.110*** (0.003)
lag 면적당 임대료	-0.005 (0.004)	-0.003 (0.004)	-0.005 (0.004)	0.000 (0.004)	-0.002 (0.004)
lag 대중교통 접근성	-0.003*** (0.001)	-0.003*** (0.001)	-0.004*** (0.001)	-0.003*** (0.001)	-0.003*** (0.001)
lag (지역) 고용률 (log)	-0.114*** (0.016)	-0.116*** (0.016)	-0.125*** (0.017)	-0.110*** (0.016)	-0.094*** (0.016)
상수	1.889*** (0.027)	1.919*** (0.027)	1.890*** (0.026)	1.886*** (0.027)	1.886*** (0.027)
관측치	18,945	18,945	18,945	18,945	18,945
Log-likelihood	-7,040.129	-7,034.861	-7,054.459	-7,020.210	-7,015.375
AIC	14,104.257	14,093.722	14,132.918	14,064.410	14,054.751

표 4 베를린의 문화접근성과 청년 주거지 비율 간 공간회귀 분석 결과

변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공연시설	영화관	종합지수
E2SFCA (문화접근성, log)	0.057*** (0.021)	0.025*** (0.005)	0.043** (0.016)	0.075*** (0.015)	0.050*** (0.008)
대학까지의 거리 (log)	0.044 (0.142)	0.008 (0.005)	0.010 (0.017)	0.017 (0.017)	0.021*** (0.007)
면적당 임대료	0.245 (0.290)	0.386*** (0.060)	0.053*** (0.011)	0.194** (0.088)	0.270*** (0.090)
대중교통 접근성	0.001 (0.002)	-0.025 (0.019)	0.011 (0.014)	0.051* (0.027)	-0.016 (0.015)
(지역) 고용률 (log)	-0.027 (0.188)	0.100* (0.039)	0.003 (0.006)	0.116 (0.080)	0.035 (0.036)
lag E2SFCA (문화접근성, log)	-0.044* (0.024)	-0.010 (0.006)	-0.006 (0.016)	-0.038** (0.017)	-0.014 (0.009)
lag 대학까지의 거리 (log)	-0.060 (0.151)	-0.017** (0.007)	-0.008 (0.019)	-0.016* (0.021)	-0.010 (0.006)
lag 면적당 임대료	-0.041 (0.306)	-0.152** (0.063)	-0.045*** (0.012)	-0.060 (0.090)	-0.123 (0.106)
lag 대중교통 접근성	0.082 (0.253)	0.107 (0.020)	0.008 (0.014)	-0.014 (0.027)	0.094*** (0.015)
lag (지역) 고용률 (log)	0.234 (0.159)	0.071** (0.034)	0.012 (0.020)	-0.229** (0.102)	0.145*** (0.046)
상수	-1.122*** (0.430)	-1.067*** (0.199)	0.011 (0.007)	0.463* (0.247)	-1.147*** (0.153)
관측치	12,548	13,486	11,156	5,463	15,852
Log-likelihood	-8,712.676	-9,337.076	-7,760.104	-3,548.142	-11,191.290
AIC	17,451.350	18,700.150	15,546.210	7,122.283	22,408.580

표 5 서울-베를린 공간회귀 분석 결과의 비교·종합

구분	서울	베를린
도서관	$\beta > 0^{***}, \theta < 0^{***}$	$\beta > 0^{***}, \theta < 0^*$
박물관·미술관	$\beta > 0(ns), \theta < 0^{***}$	$\beta > 0^{***}, \theta < 0(ns)$
공연시설	$\beta > 0^{**}, \theta < 0^*$	$\beta > 0^{**}, \theta < 0(ns)$
영화관	$\beta > 0^{***}, \theta < 0^{***}$	$\beta > 0^{***}, \theta < 0^{**}$
종합지수	$\beta > 0^{***}, \theta < 0^{***}$	$\beta > 0^{***}, \theta < 0(ns)$
공간 메커니즘	여러 시설 유형에서 $\beta > 0, \theta < 0$ 패턴이 반복되어, 문화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이 집중되는 반면, 인접 지역에서는 청년 비중이 낮아지는 대체효과가 나타남	대부분의 시설에서 $\beta > 0, \theta \approx 0$ 또는 약한 음(-)의 값을 보여, 문화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 청년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은 있으나, 인접 지역 간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한 분산형 구조를 보임
청년 주거지 분포의 결과	청년층의 공간 분포가 상대적으로 더 불균등하게 나타나며, 문화접근성이 높은 일부 지역으로 청년 주거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청년층이 여러 지역에 비교적 분산되어 있으며, 문화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 청년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주변 지역과의 제로섬 경쟁은 제한적으로 확인됨

04. 문화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위계적·다핵적 문화시설 공급 전략

본 연구는 문화접근성이 청년 주거지 분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그 공간적 양상은 서울과 베를린에서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줌. 이에 따라 시설 특성과 도시 공간구조를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시설 유형별 공급 전략 추진: 서울은 도서관·영화관처럼 비교적 접근성이 양호한 시설은 청년밀집 저접근 지역을 중심으로 보완하고, 박물관·미술관과 공연시설은 기존 핫스팟 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식의 맞춤형 공급 전략이 필요함. 반면 베를린은 외곽과 청년 주거지역의 공백을 줄이고 최소 수준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
- 위계적·다핵적 문화 네트워크 구축: 서울은 베를린의 중심지 체계에서 시사점을 얻되, 동일 시설을 획일적으로 확산하기보다 광역·권역·생활권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문화거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대도시 중심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각 생활권이 일상적 문화기능을 갖는 다핵적 네트워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문화-교통-주거 통합 정책 패키지 도입: 문화시설 확충만으로는 청년층의 실질적 선택권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문화 인프라 개선이 임대료 상승과 청년층 축출로 이어지는 문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주거 공급, 임대료 안정, 생활권 교통 개선을 문화정책과 연계한 통합 패키지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기반 입지 선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r5r 등 실제 이동시간을 반영하는 접근성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신규 시설 입지를 보다 정밀하게 선정하고, 공급 이후에도 접근성 개선효과와 공간적 형평성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즉, 향후 문화정책은 시설 수의 단순 확대보다 청년 주거지와와의 공간적 대응성, 위계적·다핵적 문화거점 체계 구축, 그리고 주거·교통과 연계된 실질적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문화시설의 편중된 입지를 완화하여 청년층의 접근 기회를 보다 균형 있게 확장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한국은행. 2025. 경기지역 청년층의 계속거주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월 23일 보도자료.

Brown, L. A., & Scott, M. 2012. Rescaling of cultural amenities: High-skilled migration and local labor market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2, no.5: 1003-1030.

Kulturraum Berlin. 2025. Berliner Kulturkataster [Berlin Cultural Cadastre]. <https://kulturraum.berlin/projekte/kulturkataster> (2025년 11월 28일 검색).

Lawton, P., Murphy, E., and Redmond, D. 2013. Residential preferences of the 'creative class'? *Cities* 31: 47-56.

Moreno, C., Allam, Z., Chabaud, D., Gall, C., and Pratlong, F. 2021. Introducing the "15-Minute City": Sustainability, resilience and place identity in future post-pandemic cities. *Smart cities* 4, no.1: 93-111.

Pereira, R. H. M., Saraiva, M., Herszenhut, D., Braga, C. K. V., and Conway, M. W. 2021. r5r: Rapid Realistic Routing on Multimodal Transport Networks with R⁵ in R. Findings. <https://findingspress.org/article/21262-r5r-rapid-realistic-routing-on-multimodal-transport-networks-with-r-5-in-r> (2026년 5월 7일 검색).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5. 서울시 문화공간 정보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5487/S/1/datasetView.do> (2025년 9월 10일 검색).

- 이소영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soylee@krihs.re.kr, 044-960-0316)
- 이영주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leeyj@krihs.re.kr, 044-960-0566)
- 홍사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saheum@krihs.re.kr, 044-960-0356)
- 박해정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hjpark@krihs.re.kr, 044-960-0429)

※ 이 브리프는 “이소영, 이영주, 홍사흠, 박해정. 2025. Spatial Disparities in Cultural Service Accessibility and Young Adults' Residential Distribution: Comparing Seoul and Berlin (도시 내 문화접근성 격차와 청년층 주거지의 공간 분포: 한국과 독일의 비교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임.

※ 이 브리프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정부나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화 044-960-0114 팩스 044-211-4760 홈페이지 www.krihs.re.kr



9 473091 745006

